

# 내년도 국비확보액 6조3028억 최대 차·포 떼면 2조원대 '뚝'

## 집중점검 도 국비확보 내용 들여다보니

강원도가 그동안 동계올림픽에 모 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 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신규사업이 전무, 향후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확정된 내년도 강원도 관련 국비는 역대 사상 최대인 총 6조 3028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313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가 확보한 전체 6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비 중 통상적으로 매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국고보조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기금사업을 제외하면 도와 도내 정치권이 확보한 순수 국비는 4조원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림픽관련사업 2조원을 제

## 순수 국비는 4조원대 올림픽관련 예산 2조 2018년 이후 대책 전무

외하면 실제 국비확보액은 2조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반국고보조사업(1조 639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4648억원), 기금사업(3900억원)으로 총 2조 4943억원 규모다.

올림픽 관련 예산도 올림픽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철도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직간접 예산이 15개 사업, 2조 19억원에 달한다.

이들 국고보조사업과 동계올림픽 관련사업은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는 국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올림픽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부터는 국비지원 규모가 6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도는 나노바이오산업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나섰지만 대부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했거나 정부의 선정과정에서 고배를 들었다. 동서고속철도사업도 예타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신규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 이후 현재의 국비 확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대체할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3면 백오인 106in@kado.net

강원호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단위:억)

사업명	예산
문화올림픽 지원	70
올림픽아트센터 건설	114
올림픽 도시경관 지원	50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20
올림픽 IC개설	35
원주~강릉철도	1조1727
올림픽 경기장	1978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1263
올림픽 프라자 조성	150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188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135
올림픽 경기장 주변 하천정비	137
기존선 고속화 올림픽 지원	747
제2영동고속도로	2021
국도 6호선	1384
합계	2조19

## 양구군 내년 예산 2575억7200만원

양구군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5%(86억원) 증가한 2575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양구군은 일반회계 2277억 5100만원, 특별회계 298억 2000여만원 등 2575억 7200여만원 규모 2016년 당초 예산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4%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많은 국비가 투자됐던 '양구군 통합 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3%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감소 추세 속에서도 소폭이나마 예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구/진종인

국내건설수주 연간 사상 최대 실적 130兆 육박

# 10월 수준 지속맨 140조원도 가능

〈11조9967억원〉

## 건협 “민간토목外 전부문 증가”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수주금액이 13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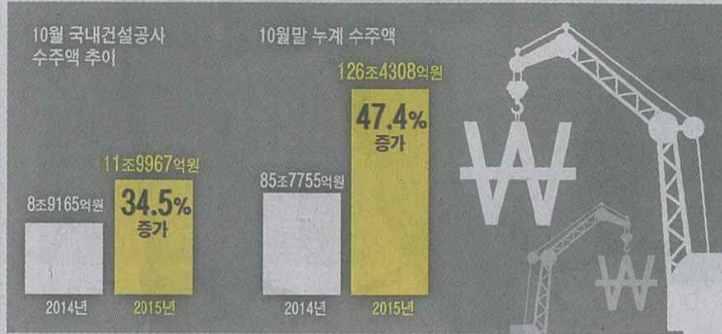
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구)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 국내건설공사 수주금액이 11조9967억원으로 작년 10월 8조9165억원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누계 수주액은 126조4308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수주액 85조7755억원보다 무려 47.4%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1월에 연간 최대 수주금액 돌파가 확실시된다. 그동안 국내건설공사 수주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07년(127조원)이었다.

나아가 130조원 돌파는 물론 140조원까지 바라보게 됐다. 10월 수주금액(11조9967억원) 수준으로 남은 11월과 12월 수주금액을 채우면 14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10월 수주금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상승세를 이뤘던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증가율이 컸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7953억원으로 작년 10월 2조1910억원보다 27.6% 증가했다.

공공토목은 1조3426억원에서 1조8362억원으로 36.8% 늘었다. 댐과 항만·공항 등에서 감소했지만, 상하수도 및 기계설치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공공건축은 9592억원으로 작년 10월 8484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9조2014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10월 6조7256억원보다 36.8% 늘었다.

민간토목은 6292억원으로 34.5% 감소했지만, 민간건축은 8조5722억원으로 48.7% 증가했다. 공업용 시설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 중심으로 전부문에서 모두

증가한 결과다.

10월에 수주한 주요 민간건축공사로는 e편한세상 용인한솔시티아파트와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재개발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내년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건설업계의 민간주택 건축공사 발주 확대가 지속됐고, 공공부문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올해 계획된 미발주 공사에 대한 발주를 서두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 실적이 12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돼 연말까지 명목상으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아하! 그렇구나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서의 유의점

**Q**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간접비 청구 판례 이후 관급공사에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간접비 청구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A** 법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먼저 공기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적합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6.9.14.선고 2004다28825).

따라서 적합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여야 되고, 그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추가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 체결 당시 간접공사비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명시하거나 간접공사비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간접공사비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의 명시적인 공사 일시 정지 조치에 의하여 공사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 내의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손실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 KDI “건설경기 회복세 지속”

# 10월 기성 7.7兆… 건축 중심 증가세 유지

건설기성이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설기성(불변)은 7조781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4860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토목 부문이 2조4860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7840억원)보다 10.7% 감소로 전환됐지만 건축 부문이 5조2940억원으로 전년 동월(4조7020억원)에 비해 12.6%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KDI는 평가했다.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도 기저효과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탤다.

건설수주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 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7조7550억원) 대비 27.5% 증가한 9조8890억원을 기록했고 건축허가 면적도 1만7159㎡로 전년 동월(1만2180㎡)보다 40.9% 늘어났다.

10월 건설기성(불변)



주택시장에 대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양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아파트 거래도 여전히 활발하다고 KDI는 분석했다. 공동주택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31.4% 증가한 8만4412가구였고 아파트 거래는 전년 동월보다 10.0% 감소했으나 월 10만가구 내외의 양호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한편 KDI는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남기자 knp@